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부문 재국유화로 재정 악화 우려 커져

9월 10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메히아 대통령이 1999년에 민영화된 배전회사 3개 중 Edesur과 Edenorte 2개 회사의 지분 50%를 다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F가 지분재매입 계약의 체결을 30일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9월 30일 스페인의 Union Fenosa와 계약체결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배전회사의 재국유화 결정은 전력부문 민영화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분매입과 부채인수로 정부 재정도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배전회사 재국유화 경과와 전망

지난 1999년 도미니카공화국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국영전력공사(CDE)를 2개의 화력발전회사와 3개의 배전회사로 분리하

여 민영화¹⁾시킨 바 있다. 동 민영화사업의 국제입찰 결과, 66.4만 KW 발전용량의 Haina 화력발전회사와 57.3만 KW 발전용량의 Itabo 화력발전회사가 각각 Seaboard와 New Caribbean Investment에 낙찰되었다. 북부 및 남부 지역을 관장하는 2개 배전회사(Edesur, Ede norte)는 스페인의 Union Fenosa에, 동부지역을 관장하는 배전회사(Edeeste)는 미국의 AES에 낙찰되었으며, 향후 40년간 3개 배전회사는 각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부문의 민영화 이후에도 전력난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배전회사의 잦은 배전 중단으로 인해 단전 사태가 빈발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유혈 소요사태로 번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단전사태는 발전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배전망이 노후하여 전력손실률이 60%

1) 수력발전회사, 송전회사, 기술지원회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됨.

에 이르는 데다 정부기관을 포함한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연체함에 따라 배전회사가 발전회사에 전기요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겹쳐 발생한 것이다. 배전회사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누적된 정부의 체납 전기요금만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메히아 정부는 전력요금 인상²⁾과 전력매매방식의 변경³⁾ 등 전력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부와 남부 지역을 관장하는 배전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Union Fenosa와 도미니카 정부는 전력위기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 왔다. 도미니카 정부는 Union Fenosa의 잦은 단전을 비난하였고, Union Fenosa는 최근 폐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전력생산량 부족 등을 단전사태의 원인으로 주장해 왔다.

결국,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배전회사의 재국영화를 추진하였고, Union Fenosa가 동국 정부의 지분매입 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도미니카 정부는 매입한 배전회사(Edesur와 Edenorte)를 민간에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분간 국영전력공사인 CDE가 배전회사를 직접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빈번한 단전 발생 등 전력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전력 부족량이 300MW 수준에 달하고 있고 매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7%인데 비해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이를 해

소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재정 악화 우려 커져

배전회사의 재국유화 결정으로 인해 동국의 재정상태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정부지출 증가와 공공부채 누적으로 정부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전회사의 지분매입 대금으로 7억 달러의 추가 재정지출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이 지난 8월에 도입한 IMF의 대기성차관 제공조건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국 정부가 배전회사 매입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도미니카 정부는 2003년 12월 이전에 7,350만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한 뒤, 매년 4,800만 달러씩 총 5억 7,600만 달러를 12년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동국 정부는 주식 재인수 대금 외에도 4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배전회사의 부채까지 떠안아야 한다.

한편, 2000년 8월 메히아 대통령 집권 이후 공공부채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00년 22%에서 현재는 4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억 5,500만 달러의 정부채 해외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배전회사의 부채 인수와 정부채 해외발행을 감안하면 이 비율이

2) 최소 28%에서 최대 132%로 평균 45.1%가 인상됨.

3) CDE를 통한 전력매매에서 발전회사가 직접 배전회사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함.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채 증가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은 세금인상이나 정부지출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수출세 인상조치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지출 축소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금년 5월 국내 3위의 시중은행인 Banco Intercontinental (Baninter)의 파산과 이번 배전회사의 채매입 결정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 증가와 IMF 차관 지원⁴⁾ 중단 가능성 등으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정부재정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당분간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년도 경제전망도 어두워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나, 2001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환율불안과 Baninter의 파산으로 인한 내수침체 지

속까지 가세하여 동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3.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 도입 이후 환율이 다시 안정세⁵⁾로 돌아섰고, 관광산업과 보세가공무역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04년에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2.1%)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초 달러당 15.11로 시작한 페소화 환율은 2002년 말에는 22.23까지 상승하였고, 2003년 6월에는 한 때 40까지 상승하였으나, IMF의 구제금융 지원원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28~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상승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 전체로는 2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던 경상수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로 금년에는 GDP의 4.5%인 7억 달러의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e	2003 ^f
경제성장률	7.8	7.3	2.9	4.1	-3.0
소비자물가상승률	6.5	7.7	8.9	5.2	21.2
재정수지 / GDP	-3.0	-2.0	-2.1	-2.6	-3.5
경상수지	-429	-1,027	-741	-875	700
경상수지 / GDP	-2.5	-5.2	-3.5	-4.1	4.5
외환보유액	694	627	1,099	468	..
총외채잔액	4,685	4,540	5,093	5,300	6,500

자료: IMF, IFS 및 EIU, Country Report, 각호

【김영석】

- 4) 금년 8월 2년 만기 6억 1,800만 달러의 IMF 대기성차관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1억 2,000만 달러가 집행된 상태임.
- 5) 수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002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함.

